

기획특별전
Special Exhibition

2023. 9. 27 -
2024. 2. 12

국립한글박물관 3층
기획전시실
National Hangeul
Museum Special
Exhibition Hall, 3F



한
양
가

Hanyangga: An Ode to Seoul

서
울
구
경
가
자
스
라



전시를 열며

조선 후기, 풍요롭고 구경거리가 넘쳐나던 수도 서울의 풍경을 눈으로 직접 본 듯 그려낸 한글 노래가 있습니다. 1844년 한산거사가 지은 『한양가漢陽歌』에는 왕의 공간 궁궐에서부터 관아가 있는 육조거리, 조선과 타국 물산이 넘쳐나는 왁자지껄 시장, 별감(別監)의 승전(承傳)놀이, 왕의 능행길, 궁에서 열린 과거 시험 풍경이 담겨 있습니다. 수도 한양에 대한 애정과 자긍심, 나라의 태평성대와 번영을 기원하는 마음도 잘 드러나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에게 수도 한양을 이해하는 데 더할 나위 없이 훌륭한 길잡이였습니다.

이번 기획특별전은 『한양가』를 우리말글의 관점에서 소개하는 최초의 전시입니다. 『한양가』에 묘사된 조선 후기 한양을 실감나게 체험할 수 있도록, 관람객들이 『한양가』의 여러 공간을 직접 거니는 것처럼 전시장을 구성했습니다. 또한 『한양가』가 들려주는 이야기에 귀 기울일 수 있는 방식으로 연출했습니다. 『한양가』 속 다양한 직업명과 물건명 등 당시의 삶과 문화를 보여주는 어휘도 함께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한글 노래로 전한, 한양의 찬란했던 순간들을 만나고 우리말글로 다시 새롭게 써 내려갈 서울을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Introduction

There is a song written in Hangeul (the Korean alphabet) vividly describing the cityscape of the capital Seoul in the late Joseon period as an affluent place full of things to see. The song “Hanyangga” (Song of Hanyang) composed by Hansangeosa in 1844 depicts a wide variety of scenes. They include the royal palace, which was considered the king’s space, Yukjo street along which government offices were located, a boisterous market overflowing with products made in Korea and other countries, seungjeonnoreum (a festivity led by the royal attendant called byeolgam in which musicians performed while gisaeng(female entertainers) sang and danced), a king’s procession to the royal tombs, and the state examination being held at the royal palace. “Hanyangga” reflects its author’s affection for and pride in the capital Hanyang and his wishes for peace and prosperity for the country. It helped the Koreans of the time to better understand the capital city.

This special exhibition is the first to explore “Hanyangga” with a special focus on its use of Hangeul. The exhibition hall has been set up to allow visitors to stroll through several spaces described in “Hanyangga” and vividly experience the city in the late Joseon period. Moreover, it allows them to listen to the stories related by “Hanyangga.” The exhibition also helps visitors learn about old Korean words that show the life and culture of their time, including diverse professional titles and product names.

It is hoped that this exhibition will offer an opportunity to enjoy some shining moments in Hanyang conveyed by this song in Hangeul and contemplate Seoul’s history related in the Korean language.

1부 아름다운 수도, 한양을 노래하다

I. Singing about the Beautiful Capital Hanyang

- 1-1 고려가요부터 『한양가』까지
- 1-2 한시로 읊고 한문으로 기록한 한양
- 1-3 한글로 기록한 『한양가』

2부 활기차다 한양 거리, 변화하고 신기하다

II. On the Dynamic Streets of Hanyang: Bustling and Exciting Scenes

- 2-1 하늘이 내신 왕도, 해동의 으뜸일세
- 2-2 조선 팔도 타국 물산, 각색 물건 벌였구나
- 2-3 구경 가자, 구경 가자, 승전놀음 구경 가자
- 2-4 임금님 능행길을 함께 구경 가 보세나
- 2-5 춘당대 앞 과거 시험, 이런 구경 또 없다네

3부 변화하는 수도 서울, 힘차게 나아가다

III. The Changing Capital Seoul: Vigorous Progress

- 3-1 한양에서 서울로
- 3-2 다시 새 희망을 향하여
- 3-3 우리가 사랑한 서울

1부 아름다운 수도, 한양을 노래하다

I. Singing about the Beautiful Capital Hanyang

한양은 임금님이 계신 나라의 수도이기도 하지만 그곳에 사는 이들에게는 일상을 살아가는 삶의 터전이기도 합니다. 국가의 중요한 시설이 갖추어져 있고 조선 팔도와 타국의 물화가 모이는 번화한 곳이라 타 지역 사람들에게는 한번쯤은 꼭 가보고픈 동경의 공간이기도 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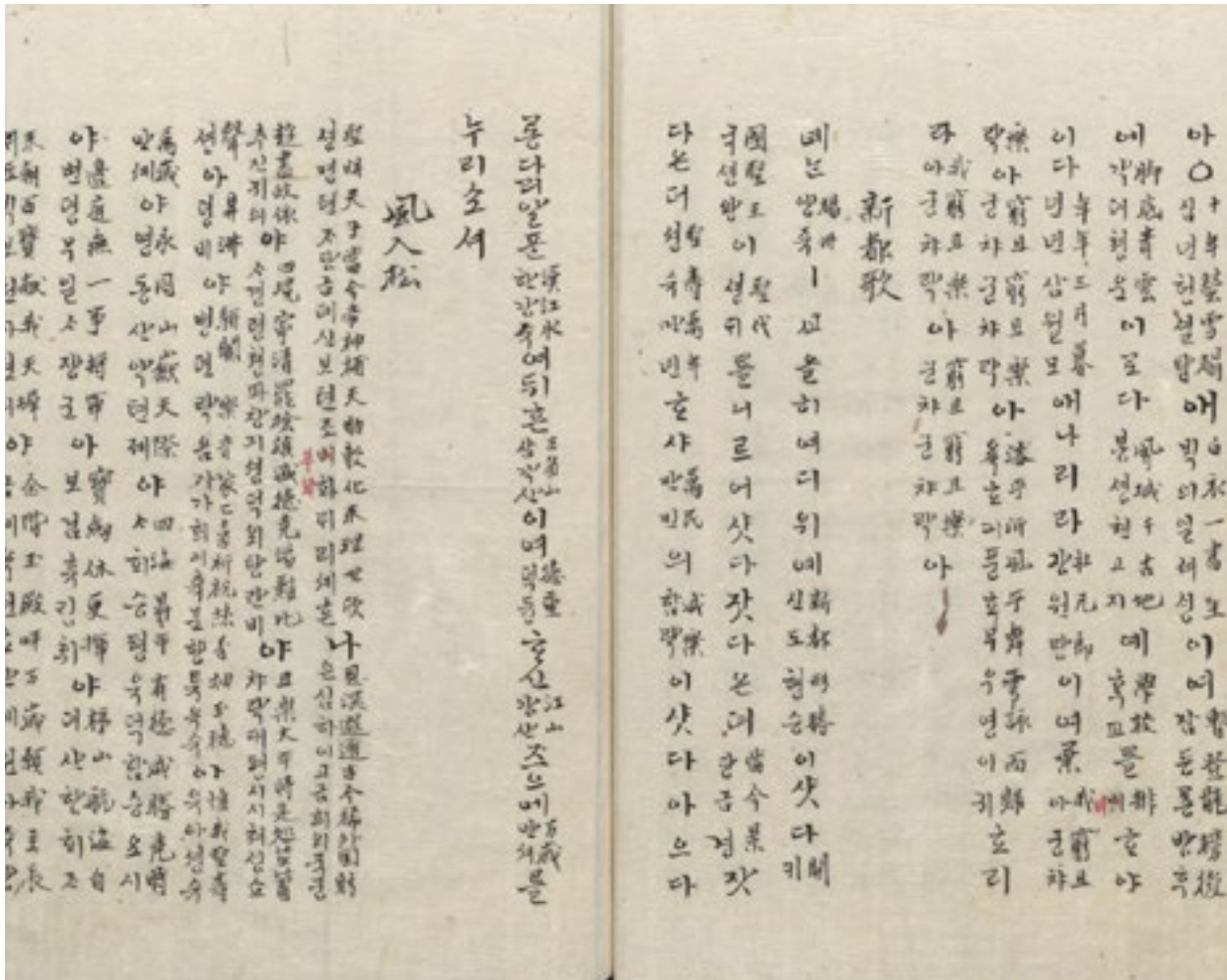
사람들은 수도 한양을 글과 그림 등으로 남겼습니다. 한양 명소의 아름다운 풍광을 노래하기도 하고, 삶의 터전으로서의 공간을 묘사하는가 하면, 한양의 역사와 풍물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수도 서울에 대해 다룬 한글 노래는 고려가요부터 조선 초기의 경기체가, 조선 후기의 시와 가사에 이르기까지 다양합니다. 특히 한산거사가 지은 『한양가』는 한양만을 본격적으로 다룬 최초의 한글 문학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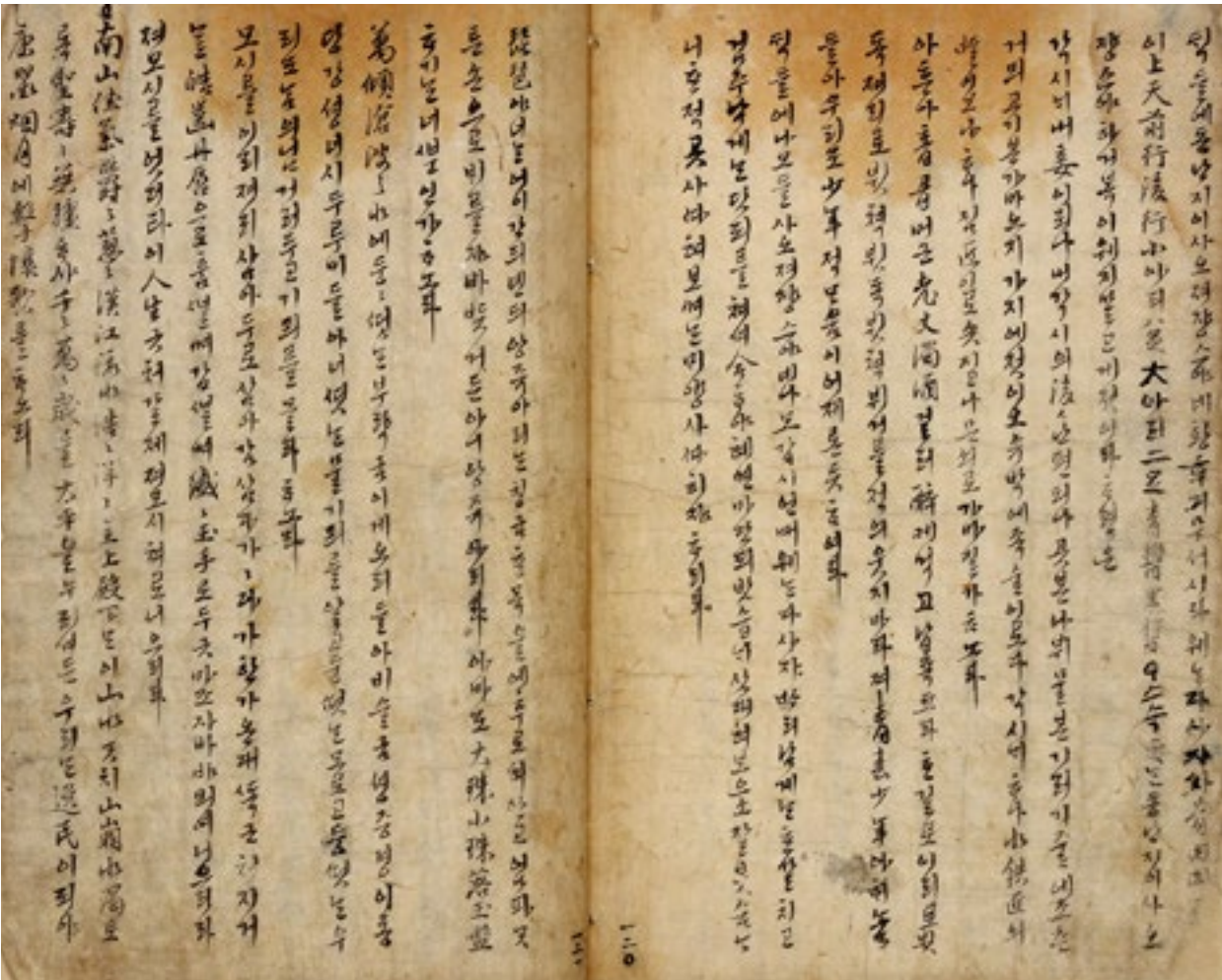
마치 한양을 직접 가서 보는 것처럼 생생하여 한양을 가보지 못한 이들에게는 그곳을 이해하는 중요한 길잡이가 되었습니다. 수도 한양에 대한 애정과 자긍심이 가득한 『한양가』는 1880년 상업용 서적 방각본으로도 만들어져 더 많은 사람들에게 널리 읽힐 수 있었습니다.

1-1 고려가요부터 『한양가』까지

“하늘이 내신 왕도 해동의 으뜸이라
국호는 조선이요, 도읍은 한양이로다”
— 한산거사, 『한양가』



조선의 새 도읍을 찬양한 노래 「신도가新都歌」 등이 실린 책 『악장가사樂章歌詞』
조선 |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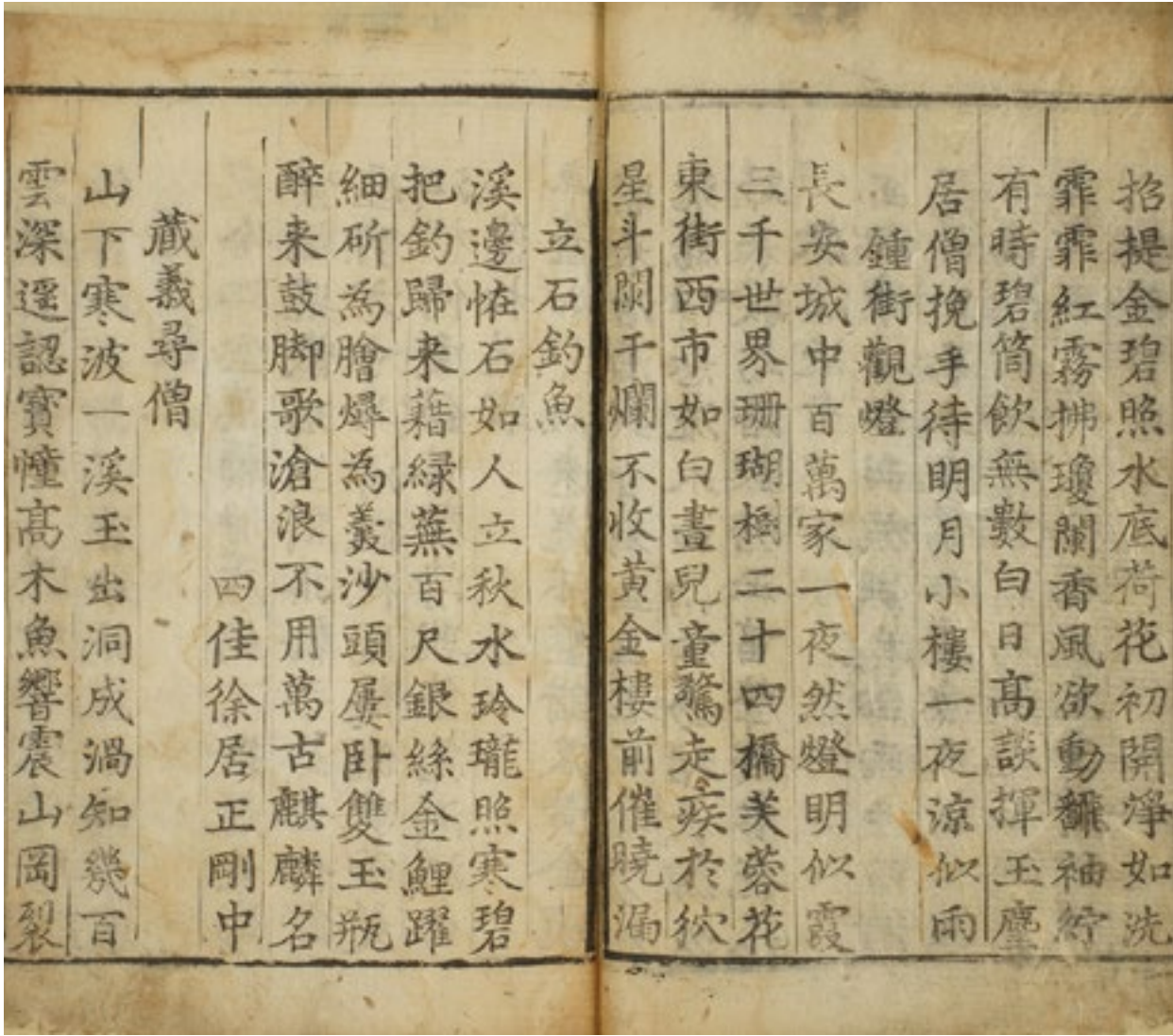
김천택이 엮은 우리나라 최초의 국문 시가집 『청구영언靑丘永言』
김천택(金天澤) | 1728년 | 보물

1-2 한시로 읊고 한문으로 기록한 한양

종로에서 관등놀이를 구경하다

“한양 성 안의 수많은 집에서
밤새 등불을 켜니 노을처럼 환하네”

— 「종로관등」, 『한도십영』



조선의 새 도읍지 한양의 열 가지 경치를 노래한 한시 모음집

『한도십영漢都十詠』

서거정(徐居正, 1420-1488) 등 | 1479년 추정 | 국립한국문학관

“배오개, 종루와 칠패 바로 도성의 3대 저자라
수많은 장인 생업하고 사람들 어깨 부딪치고
온갖 물건 이익을 쫓고 수레들 이어졌네”

— 「성시전도응령」, 『정유각시집』



박제가의 「성시전도응령城市全圖應令」이 실린 시집

『정유각시집貞蕤閣詩集』 권3

박제가(朴齊家, 1750-1805) | 1792년경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필동

“필동(筆洞)은 옛날에 남부가 이곳에 있어서
부동이라고 하였는데 우리말에 붓과
부가 비슷해서 와전되어 필동이라고
칭하게 되었다. 이 동의 둘째 거리에는
미촌 윤선거의 옛집이 있다.”

— 「각동」, 『한경지략』



유본예가 지은 조선 후기 한양의 인문지리서

『한경지략漢京識略』

유본예(柳本藝, 1777-1842) | 19세기 전반 | 국립중앙박물관

1-3 한글로 기록한 『한양가』

“어와 벗님네야, 한양 구경 가자스라
한양은 어디멘고, 우리나라 국도로세”

— 한산거사, 『한양가』



조선 후기 한양의 풍물을 그린 노래

『한양가漢陽歌』 목판본

한산거사 | 1880년경 | 국립중앙도서관

“부축하고 올라가니 어약용문 되었구나”
“몸에는 흥삼이요, 머리에에는 어사화라”

— 한산거사, 『한양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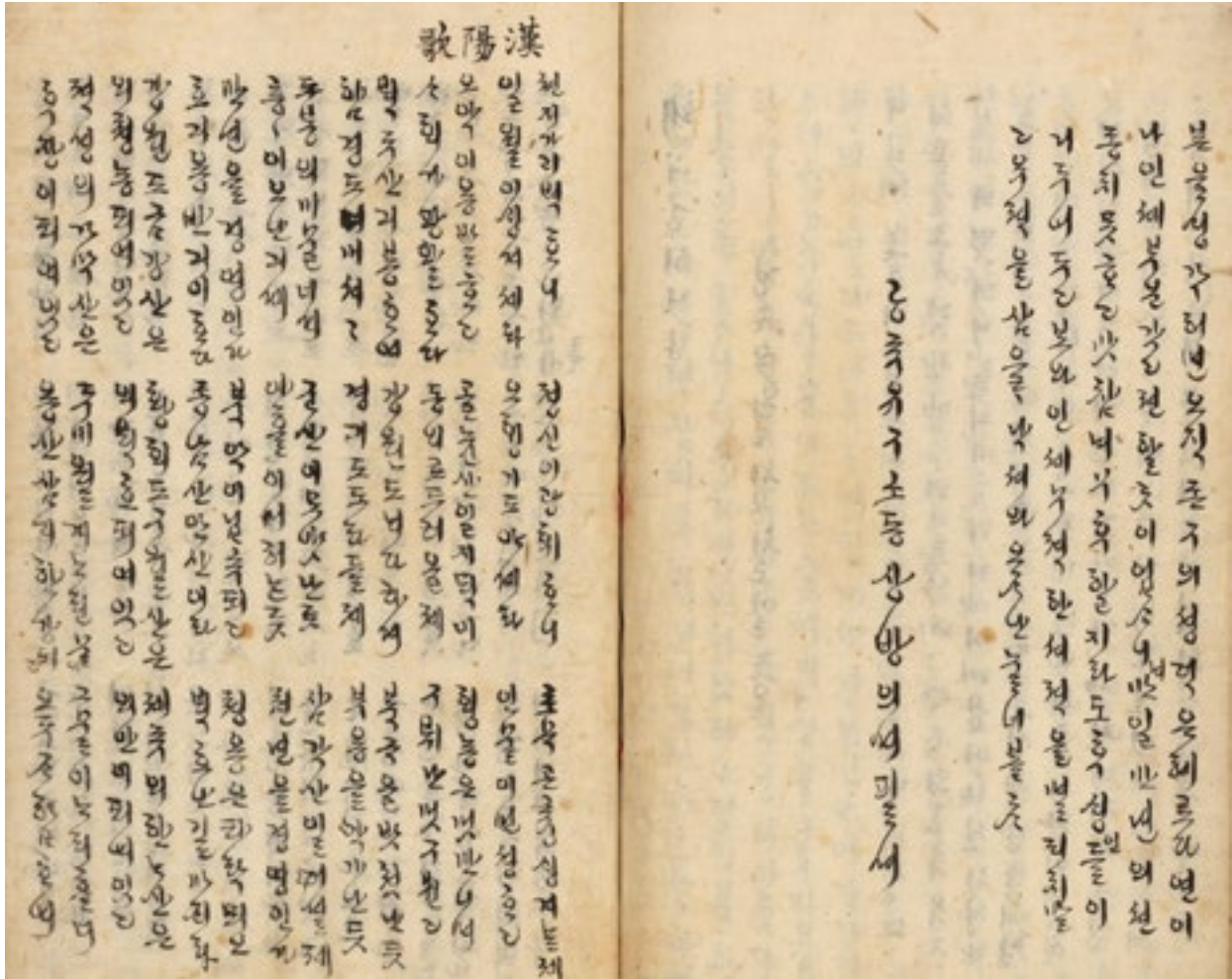
『한양가』 목판

1880년경 | 국립중앙박물관

“천개지벽하니 일월이 생겼어라
성신이 광휘하니 오행이 되었어라”
“의관도 화려하고 문물도 거룩하다
여염은 억만가요, 성첩은 사십 리라”

— 한산거사, 『한양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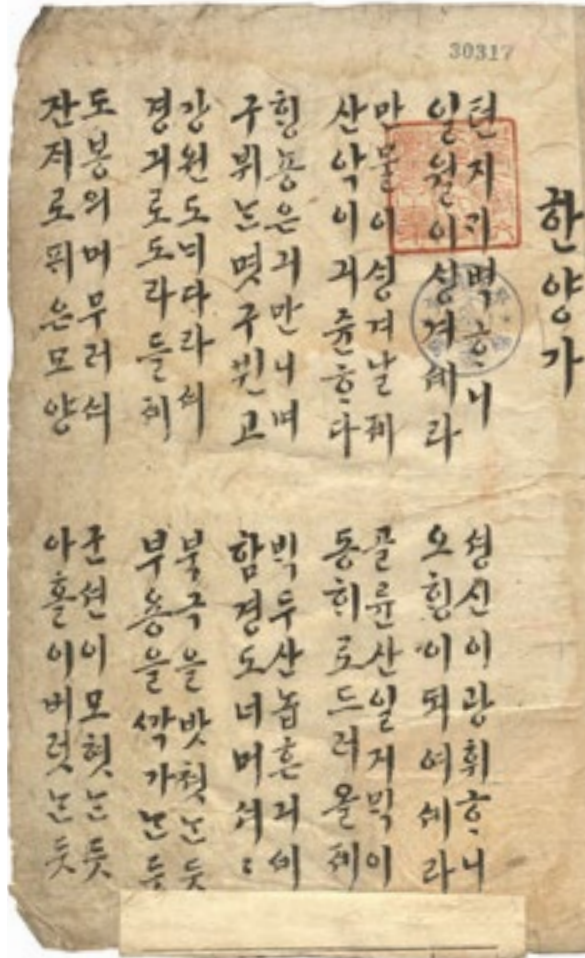
『한양가』의 여러 필사본



국립중앙도서관



서울대학교 도서관



충남대학교 도서관

2부 활기차다 한양 거리, 변화하고 신기하다

II. On the Dynamic Streets of Hanyang: Bustling and Exciting Scenes

조선 후기 활기찬 한양 거리는 변화하고 신기하며 각종 구경거리로 넘쳐납니다. 먼저 궁궐에 가서 아름다운 전각과 연못 등을 노닐다가, 임금님이 나랏일을 하는 정전(正殿) 안에는 뭐가 있나 들여다봅니다. 궁에서 일하는 나인, 무수리, 별감, 무관 등이 입고 있는 옷도 구경하고, 궁궐 안팎에서 일하는 여러 부처의 관리들이 분주히 움직이는 모습도 관찰합니다.

시장에 가서는 조선 팔도와 타국의 각색 물건을 벌여 놓고 파는 여러 상점들을 다니며 그 화려함과 떠들썩함에 놀랍니다. 한양에 가면 꼭 봐야 한다는 여러 명승지와 놀음을 구경하고, 온갖 놀음 중에서도 단연 최고라고 하는 승전놀음에도 은근슬쩍 찾아가 봅니다.

평생 한번 볼까 말까 한 임금님을 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해서 능행길도 따라가 봤습니다. 주교대장의 지휘 아래, 능행 행렬이 배다리로 강을 건너는 신기한 광경을, 넋을 놓고 바라봤습니다. 능행길에서 돌아온 임금님이 춘당대에서 직접 과거 시험을 주관한다고 하시니, 과거 시험이 어떻게 치러지는지 궁금해 하루 종일 구경도 했습니다. 이만하면 한양 구경 한 번 아주 잘~ 했습니다.

1844년 한산거사가 지은 『한양가』

2-1 하늘이 내신 왕도, 해동의 으뜸일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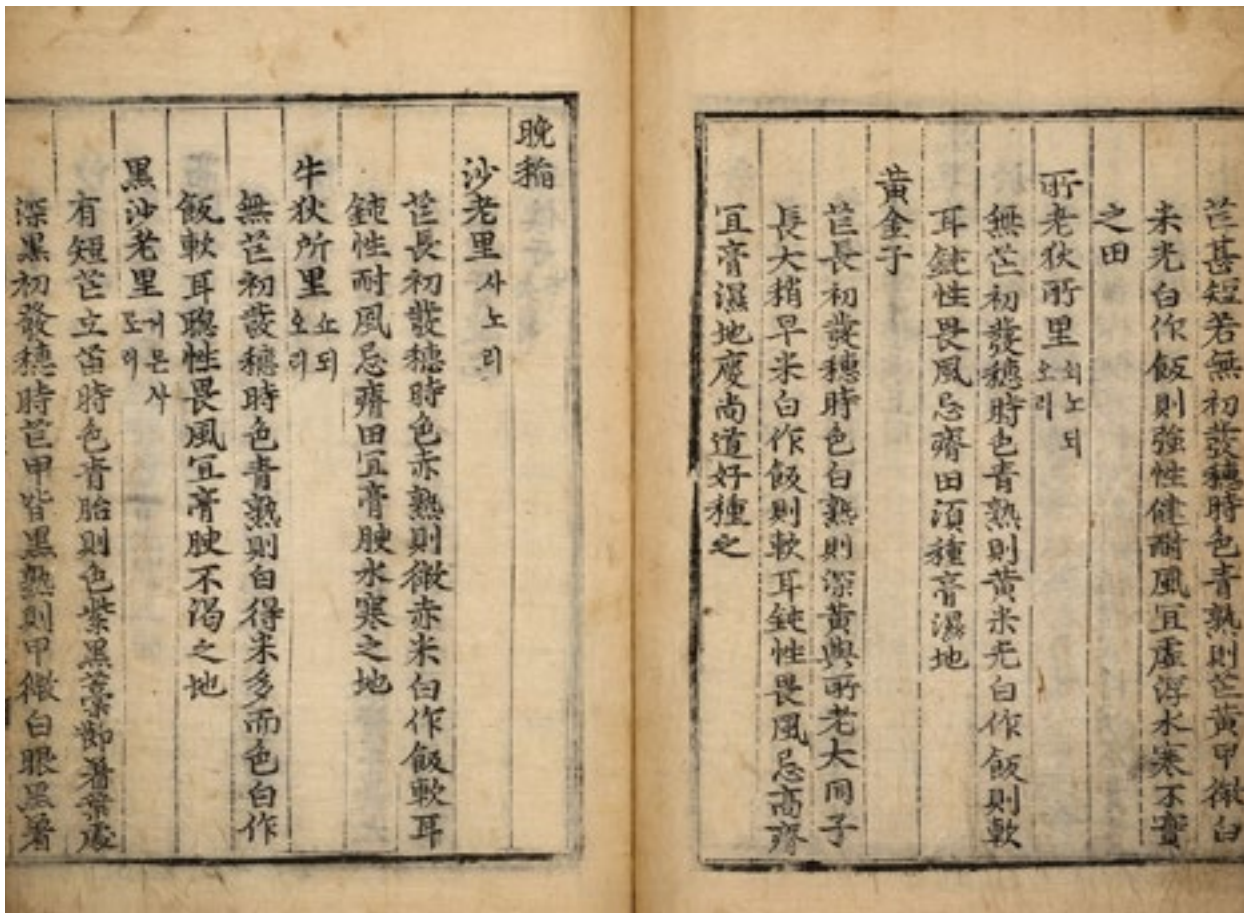
“국호는 조선이요, 도읍은 한양이로다”
“인정전, 근정전은 통치하는 정전이요,
희정당, 대조전은 지밀처소 되었어라”
— 한산거사, 『한양가』



조선 후기 서울 지도 목판본
〈수선전도首善全圖〉 | 김정호(金正浩) | 1824-1834년

“동편은 종묘 되고 서편은 사직이로다”

— 한산거사, 『한양가』



한글 곡식명이 수록된 신숙의 농서 모음집
『농가집성農家集成』 | 신숙(申淑, 1600-1661) | 17세기 추정



농경 사회의 이상을 담은 「빈풍칠월편」을 그린 그림
《빈풍칠월도첩幽風七月圖帖》
이방운(李昉運, 1761-?) | 조선 | 국립중앙박물관

2-2 조선 팔도 타국 물산, 각색 물건 벌였구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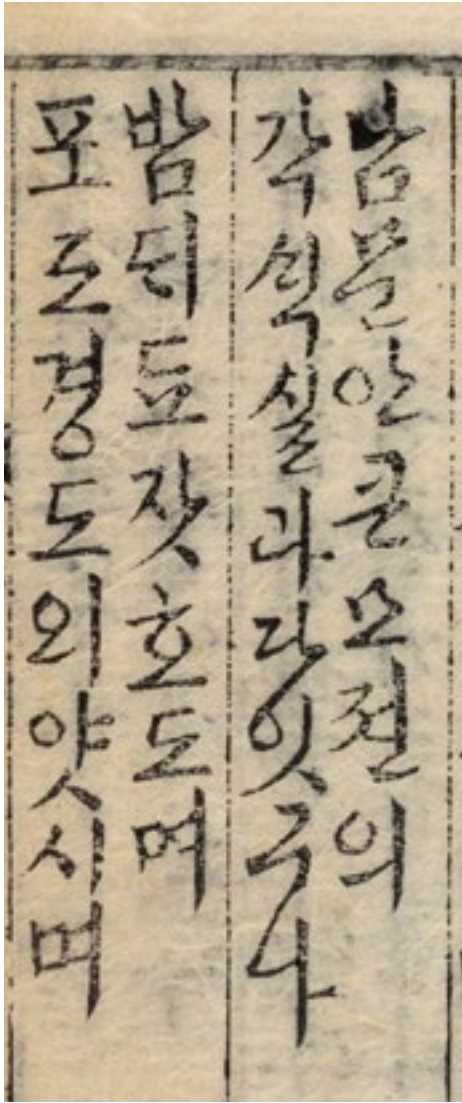
“우리나라 소산들로 부끄럽지 않건마는
타국물화 교합하니 백각전 장할씨고
칠패의 생선전에 각색 생선 다 있구나”

— 한산거사, 『한양가』



조선 후기 도성을 그린 그림
〈태평성시도太平城市圖〉 | 조선 | 국립중앙박물관

“남문 안 큰 모전에 각색 실과 다 있구나
밤, 대추, 잣, 호두며, 포도, 경도, 오얏이며”
“선전은 수전이라, 돈 많은 시정들이
호사도 혼란하고 인물들도 준수하다
각색 비단 벌였으니 화려도 장할시고”
— 한산거사, 『한양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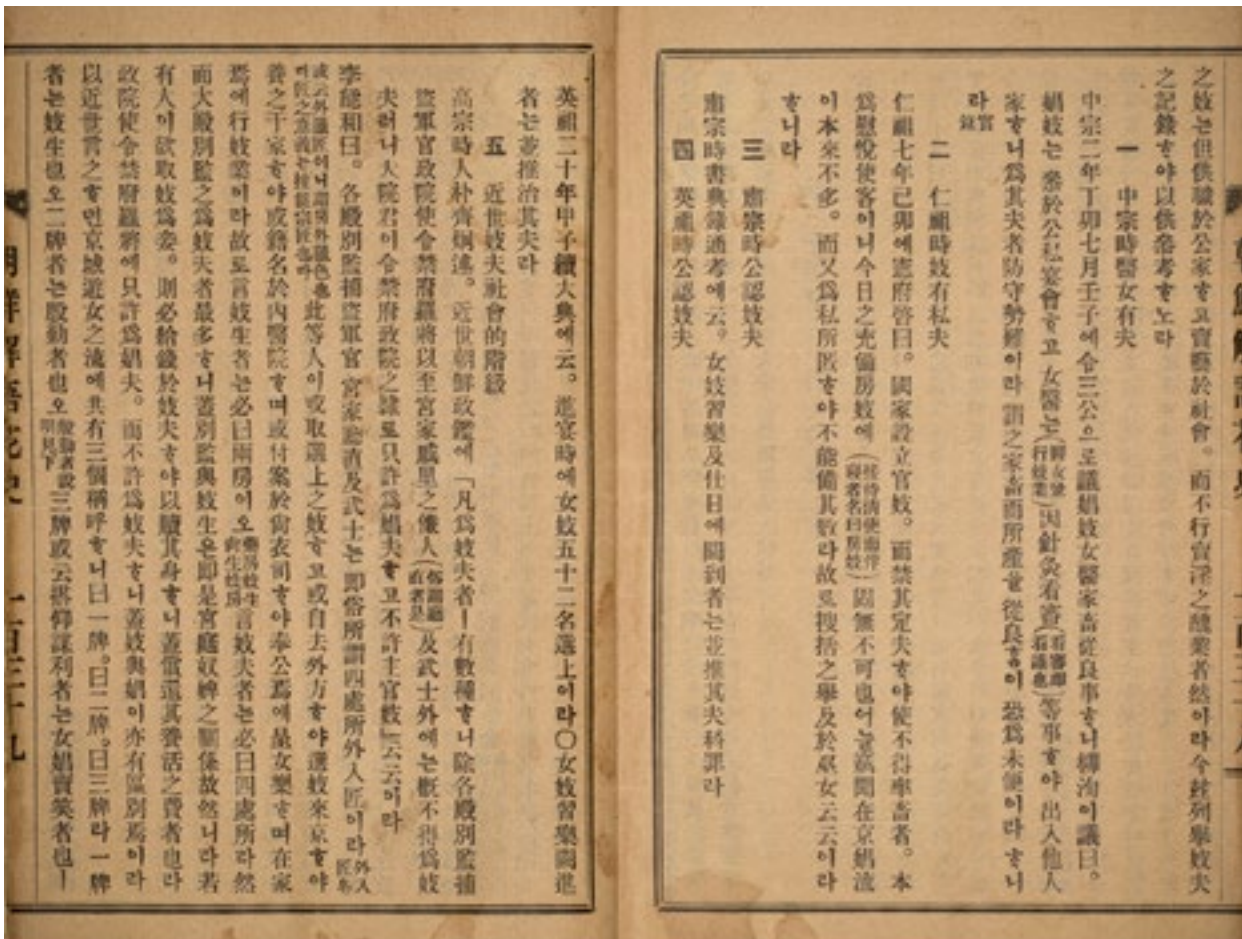
2-3 구경 가자, 구경 가자, 승전놀이 구경 가자

“북일영 군자정에 좋은 놀음 벌였구나”
“별감의 거동 보소, 난번 별감 백여 명이
맵시도 있거니와 치장도 놀라울사”
— 한산거사, 『한양가』



붉은 옷에 초립 쓴 별감을 그린 그림
〈야금모행 夜禁冒行〉, 《혜원전신첩惠園傳神帖》
신윤복(申潤福, 1758-?) | 조선 | 간송미술문화재단 | 국보

“각색 기생 들어온다”
“거상조 내린 후에 소리하는 어린 기생”
“황계타령, 매화타령, 잡가, 시조 듣기 좋다”
— 한산거사, 『한양가』



조선의 기생에 대해 체계적으로 서술한 책
『조선해어화사朝鮮解語花史』
이능화(李能和, 1869-1943) | 1927년

“금객, 가객 모였구나. 거문고 임종철이
노래에 양사길이, 계면에 공득이며”
“화려한 거문고는 안족을 옮겨 놓고
문무현 다스리니 농현소리 더욱 좋다”
— 한산거사, 『한양가』



조선 후기의 거문고 악보
『삼죽금보三竹琴譜』 | 고종 연간(1863-1907년) 추정
국립국악원 |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



거문고
20세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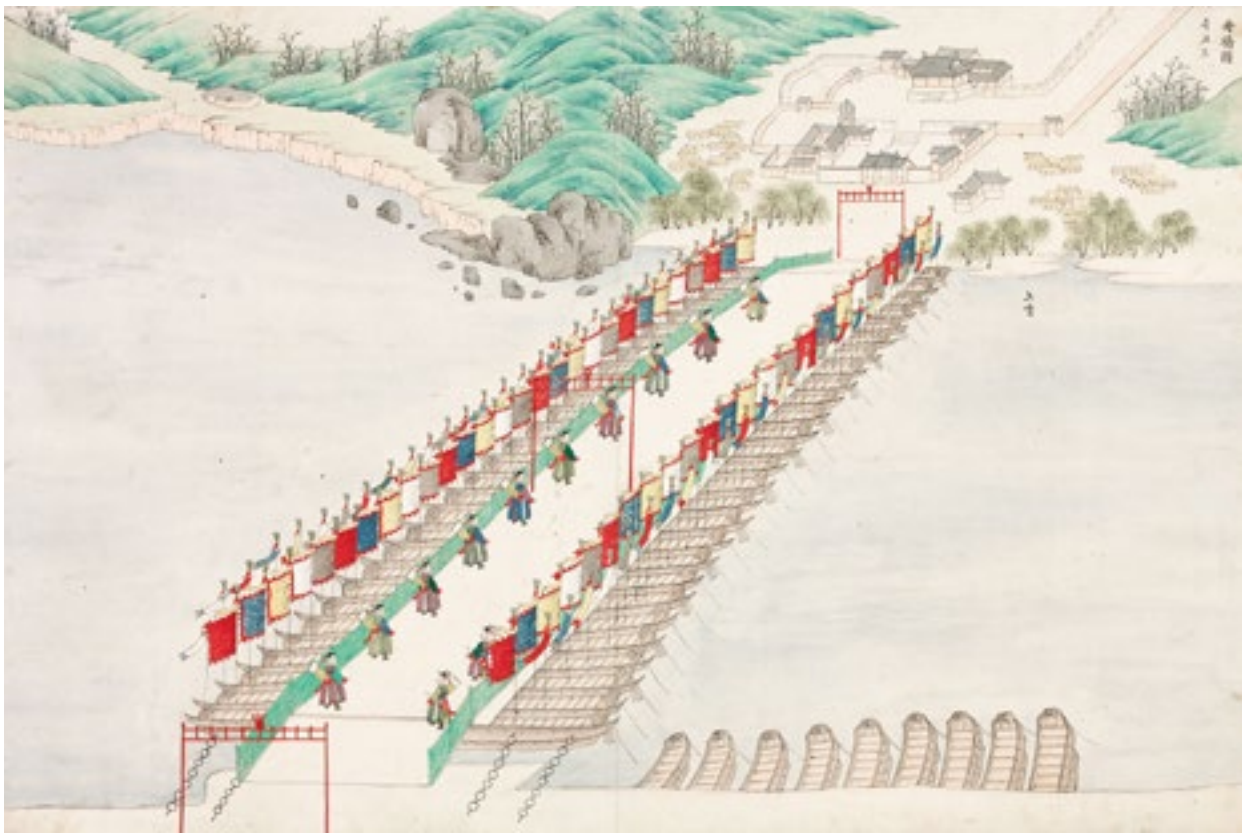


해금奚琴
20세기 | 국립국악원

2-4 임금님 능행길을 함께 구경 가 보세나

“해마다 정월이면 태묘사직 다니신 후
능행령 내리시니 남도 거둥 되신다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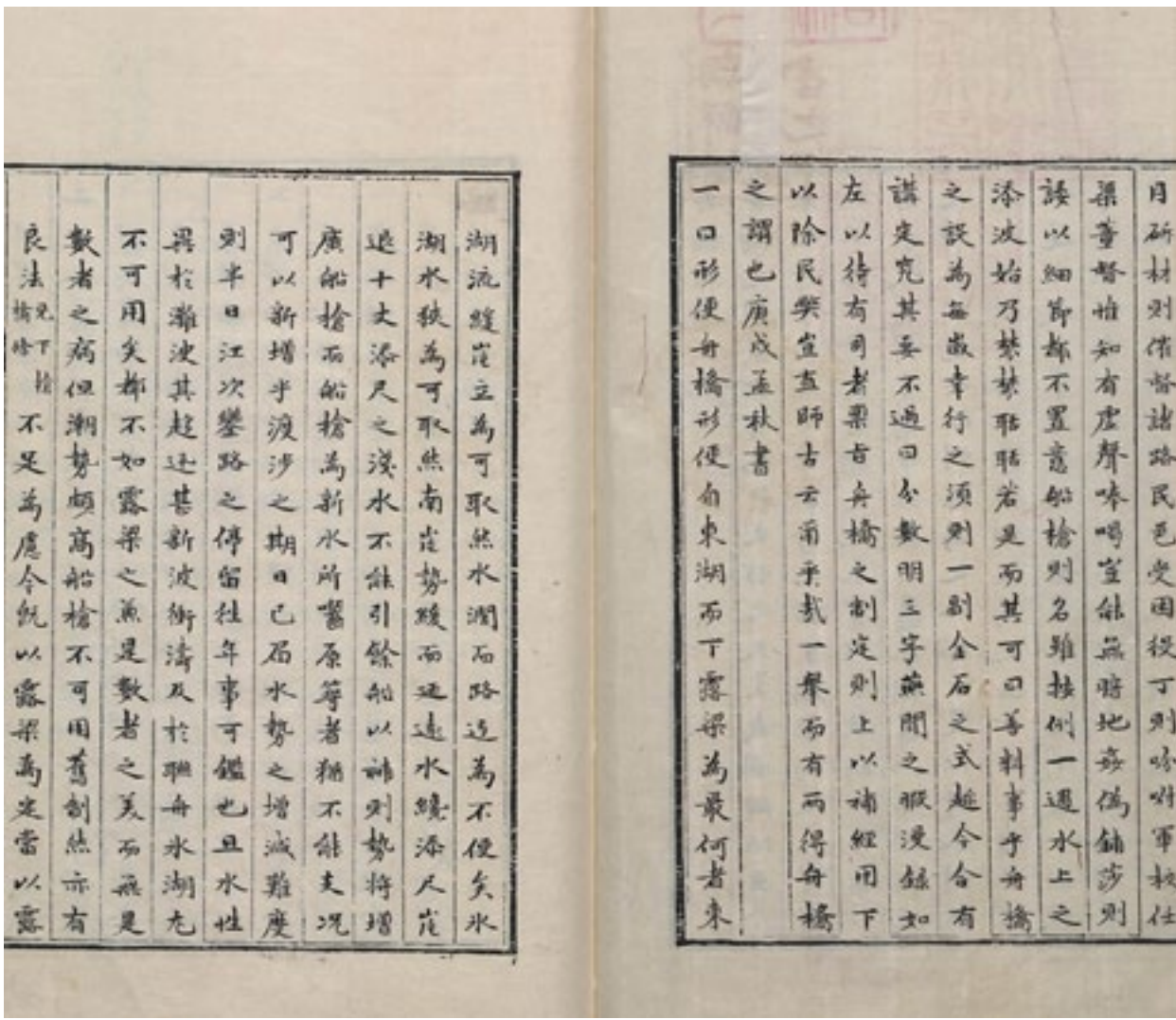
— 한산거사, 『한양가』



정조가 화성 행차 시 배다리를 건너는 장면을 그린 한글 의궤도
〈주교도〉, 《화성원행의궤도 華城園幸儀軌圖》
1795년 | 국립중앙박물관

“돌모로 지나셨다. 노랑에 당도했네
주교대장 결진하고 강물을 굳게 막아”

— 한산거사, 『한양가』



정조 때 노랑진에 가설한 배다리에 대한 기록
『주교지남부요계원』
조선 후기 |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승례문 밖 나오시니 계라차지 선전관이
자주 걸어 기어 와서 취타를 청한 후에”
“고동이 세 번 울며 군악이 일어나니”
“듣기에도 좋거니와 보기에도 엄위하다”

— 한산거사, 『한양가』



군악에서 연주되는 악기
나각과 나발 | 조선 후기 | 육군박물관



대취타 연주를 하며 가는 능행 행렬
《화성원행의궤도 華城園幸儀軌圖》 | 1795년 | 국립중앙박물관

2-5 춘당대 앞 과거 시험, 이런 구경 또 없다네

“글하는 거벽들은 구구이 읊어 내고
글씨 쓰는 사수들은 시각을 못 머문다”

— 한산거사, 『한양가』



과거 시험 수험서

과거 시험 준비를 위한 책으로는 『논어』, 『맹자』, 『대학』, 『중용』, 『시경』, 『서경』, 『주역』, 『예기』, 『춘추』의 사서오경 등이 있다.



동접(同接)을 이루어 과거 시험 보는 풍경

〈공원춘효도貢院春曉圖〉

김홍도(金弘道, 1745-?) | 18세기

안산김홍도미술관

“적덕한 뉘 집 자손 글 용한 어느 선비
십년등하 죽을 공부, 금일 등과 하였는고”

— 한산거사, 『한양가』

과거 합격 기원을 위한 생활용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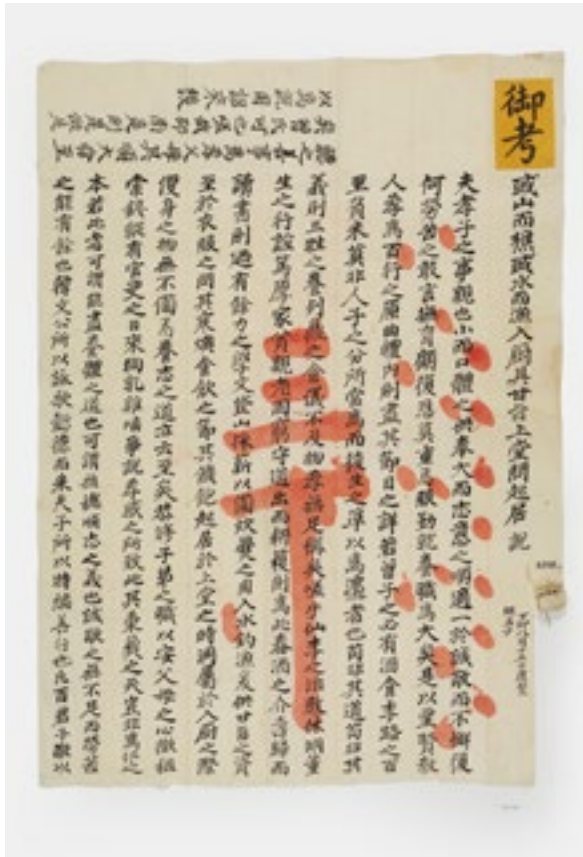
책을 읽은 횟수를 세는 도구
서산書算
대한제국 | 국립민속박물관



과거 합격 기원 문구가 적힌
수저집
조선 | 국립민속박물관



과거 시험 합격 증서
홍패紅牌
조선 | 국립민속박물관



시험 답안지
시권試券
1807년 | 국립고궁박물관

3부 변화하는 수도 서울, 힘차게 나아가다

III. The Changing Capital Seoul: Vigorous Progres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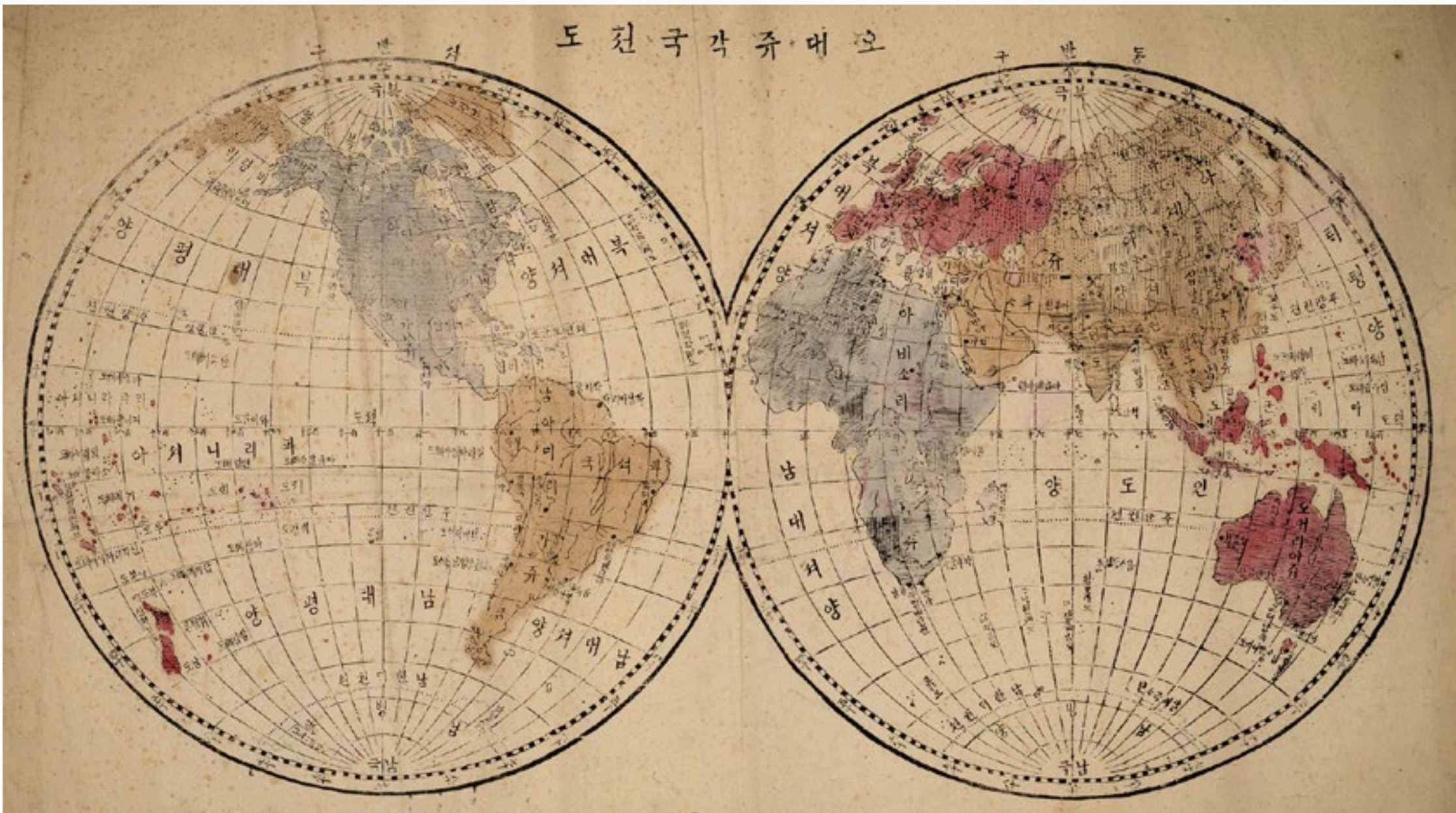
19세기 중반, 서울은 변화의 새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문호를 열고 더 커진 세상에서 바라본 서울은 더 이상 우리만의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서울은 조선의 전통과 서구적 근대가 공존하는 도시로 변모해 갔습니다.

호머 헐버트(Homer B. Hulbert, 1863-1949)의 『사민필지』(1889)에서 서울은 세계 여러 도시 중 하나로 소개되었습니다. 1896년 학부(學部)에서는 한글 세계 지도를 펴냈으며, 초등교과서에서는 더 넓어진 관점에서 서울에 대해 서술했습니다. 서양인의 관점에서 서울을 소개한 책도 다수 간행되었으며 여행지로서의 서울을 소개하는 책들도 나왔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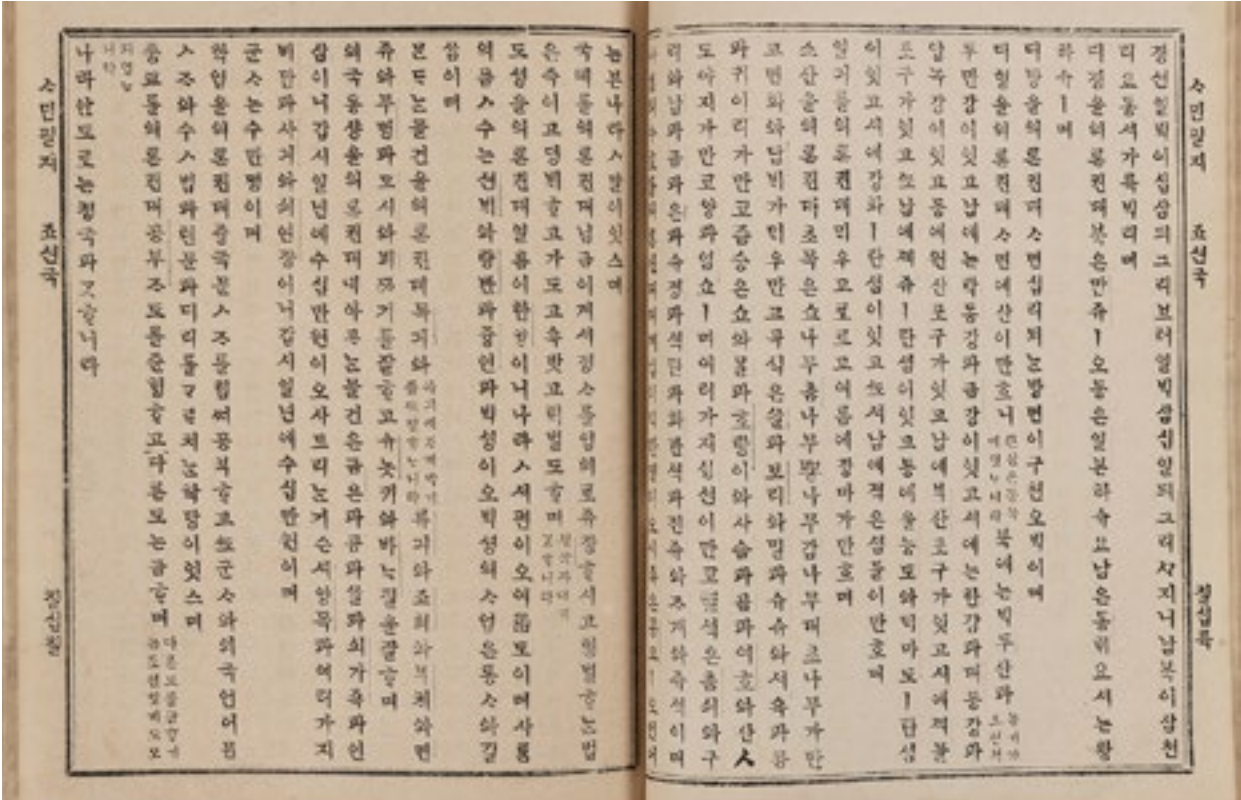
1910년 일제에 나라를 빼앗긴 후, 사공수(司空槎)라는 이는 나라를 빼앗긴 울분과 반성, 새 희망의 의지를 담아 『한양오백년가』(1913)를 짓기도 했고, 지방 거주 여성이 기차와 전차 등 교통의 발달로 더 가까워진 서울을 여행하고 기록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일제강점기를 지나 해방을 맞이하고, 한국전쟁을 치르고, 산업화 등을 겪으며 서울은 끊임없이 도약하고 변모했습니다. 1988년 서울 올림픽과 2002년 한·일 월드컵을 치르면서 국제도시로서의 저력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오늘날 한국은 K팝, 드라마, 영화 등을 통해 문화강국으로서 위세를 떨치고 있으며, 서울은 한번 가보고 싶은 도시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3-1 한양에서 서울로



학부(學部)에서 제작한 최초의 한글 세계 지도
〈오대주각국전도五大洲各國全圖〉 | 1896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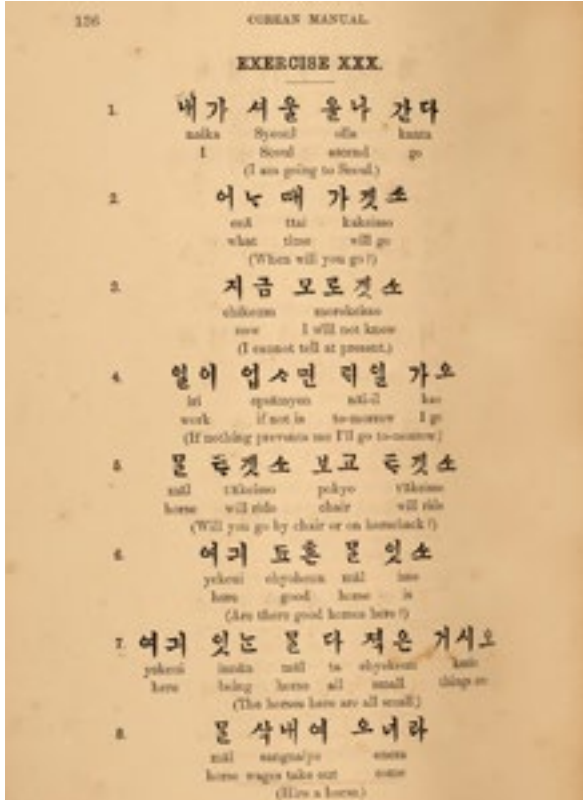


헐버트의 세계 지리서
『사민필지』

호머 헐버트(Homer B. Hulbert, 1863-1949) | 1889년



서울 풍경을 기록한 책
『꼬레아 에 꼬레아니
(Corea e Coreani)』
카를로 로세티(Carlo
Rosetti, 1876-1948)
1904년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학습 자료집
『언문말책(A Korean
Manual or Phrase Book)』
제임스 스코트 (James Scott)
1887년

3-2 다시 새 희망을 향하여

“슬프다 친구님네, 이 가사를 드리보소
엇던 가사 지어낸고, 한양가를 지어냈네”
— 『한양오백년가』



조선 왕조 오백년의 역사를 노래한 한글 가사
『한양오백년가』 필사본 | 사공수(司空槎) | 20세기



『한양오백년가』 연화자본(딱지본) | 사공수(司空槎) | 20세기

“그날이 오면 그날이 오면 삼각산이 일어나
더덩실 춤이라도 추고”
— 『시가수필 그날이 오면』



심훈의 시 「그날이 오면」이 실린 시집
『시가수필 그날이 오면』 | 심훈(沈熏, 1901-1936) | 1949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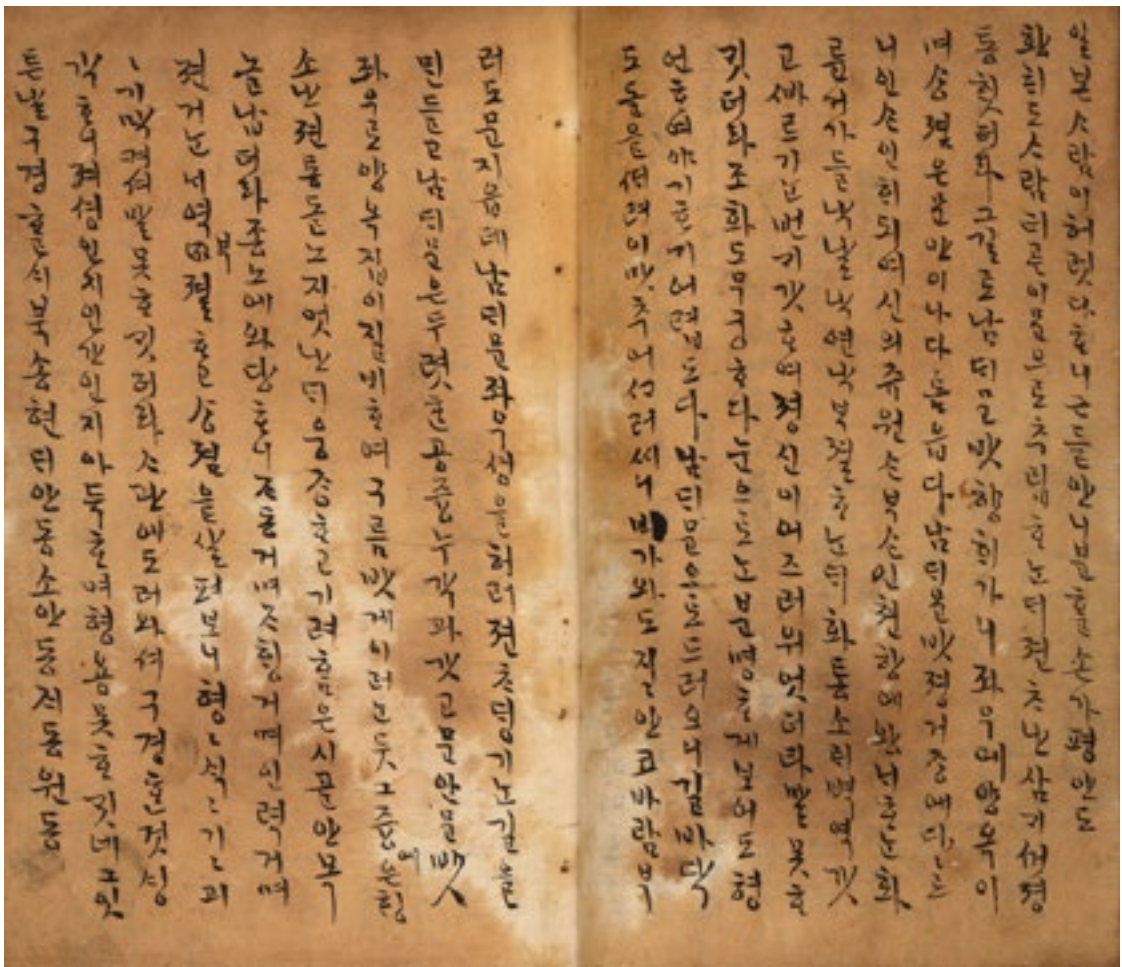
3-3 우리가 사랑한 서울

“우렁차게 토하는 기적 소리에
남대문을 등지고 떠나 나가서”
“조그마한 땀 세상 절로 이뤘네”
— 「경부철도노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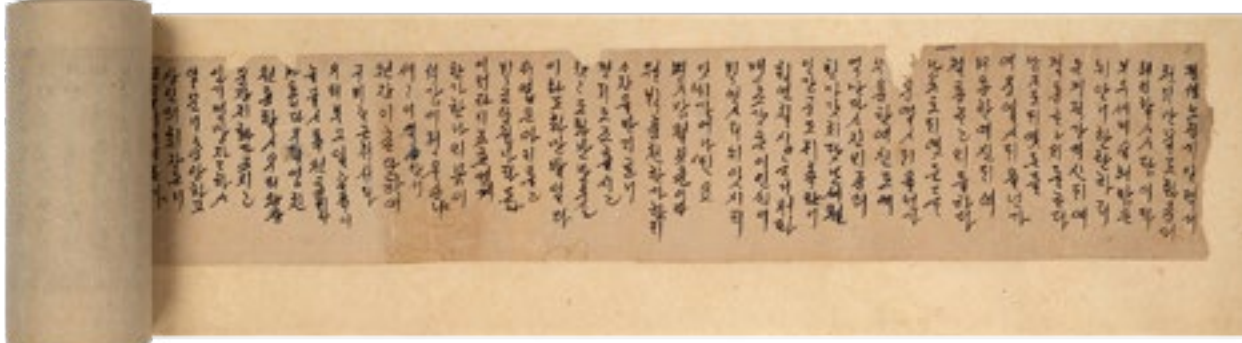


최남선이 지은 창가 「경부철도노래」
최남선(崔南善, 1890-1957) | 1908년 | 문화역서울284

“남녀를 불문하고 그 나라에 태어나 자라서
늙도록 서울 구경 한 번 못 하고 보면
부끄러운 일이다”
— 『서유록』



강릉 사는 50대의 김씨 부인이 지은 1910년대 서울 여행기
『서유록西遊錄』 | 1915년 |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안동 사는 70대 여성이 지은 1930년대 서울 여행 노래
「경성 노정기 인력거京城路程記人力車」 | 1936년 | 이상규 기증

인왕(仁王)

“도회에 거주하며 식후의 산보로서 푸대님
채로 이러한 유수한 심산에 들어갈 수 있다
하는 점으로 보아 서울에 비길 도회가
세계에 어디 다시 있으랴.”
— 김동인, 『광화사』, 1935년



1930년대 청계천 풍경을 담은 소설
『천변풍경』 | 박태원(朴泰遠, 1909-1986) | 1938년경
서수열 기증

박물관
이용안내

이용시간	월-금, 일요일 10:00-18:00 토요일 10:00-21:00 * 단체 20인 이상 시 누리집을 통해 사전 예약 * 휴관일: 새해 첫날(1.1.), 설날 당일, 추석 당일
관람료	무료 (유료는 별도 공지)
주차	약 70대 가능, 지하 1층 기본 2시간 2,000원 / 이후 30분당 500원 (1일 최대 10,000원) 가능하면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04383) 서울시 용산구 서빙고로 139
지하철	① 이촌역 2번 출구 진입 전 ‘박물관 나들길’ 이용 → 우측 방향으로 200m 직진 ② 이촌역 2번 출구 → 용산가족공원 방면으로 430m 직진 → 국립한글박물관 출입구 이용
버스	400번, 502번 용산가족공원 하차
문의	02 2124 6200
누리집	www.hangeul.go.kr
인스타그램	www.instagram.com/hangeul_m
전시 해설 안내	기획전 정시 해설 매일 2회(11시, 15시) * 해설 시간 및 내용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Visitor
Information

Opening Hours	Monday-Friday, Sunday 10:00-18:00, Saturday 10:00-21:00 * Reservation is required for the groups of 20 or more (through the Museum website) * The Museum is closed On January 1, Seolnal (Lunar New Year’s day) and Chuseok (Korean Thanksgiving Day, August 15th in the lunar calendar).
Admission	Free
Parking Space	available for approximately 70 cars (2,000 KRW for the first two hours, 500 KRW for each additional 30minutes, 10,000 KRW for full day)
By Car	139 Seobinggo-ro, Yongsan-gu, Seoul (04383)
By Subway	Take Line 4 or the Jungang Line to Ichon station and get out of Exit #2 or take the Museum Nadeulgil underpass connected to the station. At the end of the underpass, walk 200m to the right.
By Bus	Take bus #400 or #502 and get off at the Yongsan Family Park
Contact	+82 2 2124 6200
Website	www.hangeul.go.kr
Instagram	www.instagram.com/hangeul_m
Exhibiton Tours	Regular, Two times per day(11:00, 15:00)